

‘강철 잇몸’ 투혼...한 걸음씩 나아가자, 고지가 ‘눈앞’

KIA 주간 전망대



“전반기의 끝맺음은, 후반기를 여는 출발선이 된다”

이범호 감독의 말처럼, KIA의 전반기 마지막 시리즈는 단순한 3경기만 아니다. 후반기 흐름까지 이어질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KIA는 8일부터 대전에서 선두 한화와의 주중 3연전을 치른다. 상승세를 유지한 채 전반기 마무리하고, 후반기 본격적인 상위권 싸움을 준비하겠다는 구상이다.

7일 현재, KIA는 시즌 성적 45승 37패 3무로, 리그 4위에 올라있다.

선두 한화와는 4경기 차, 공동 2위 LG-롯데와는 단 한 경기차에 불과하다. 매 경기 결과에 따라 순위권 순위가 요동칠 수 있는 혼전 양상이다.

지난주 KIA는 SSG와의 주중 3연전을 위닝시리즈로 거둔 뒤 주말 롯데전 2연승으로 2위까지 올라섰다. 마지막 경기 패배로 4위로 내려앉았지만, 주간 성적 4승 2패로 팀 분위기는 안정적이다.

무엇보다 6월부터 이어진 반등세가 전반기 막판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 이탈 속에서도 2군에서 올라온 자원들이 분전하며 ‘잇몸 야구’의 진가를 드러냈다.

이번 대전 원정에서 KIA가 스윙을 거두더라도 1위 도약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위닝 시리즈 이상의 성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8일부터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리는 한화와의 전반기 마지막 3연전에 출격하는 KIA 선발진. 왼쪽부터 윤영철, 양현중, 네일

〈KIA 타이거즈 제공〉

4強 굳히고, 선두와 승차 좁히고...상승 흐름 이어 도약 틀 다지는 호기로 4할 타율 고종욱·물오른 김호령 ‘선봉’...한화戰 전반기 유종의 미 총력전

특히, 전반기 마지막 결과는 후반기 초반 전개에 직결될 수 있다.

이범호 감독도 그 부분을 강조했다.

지난 6일 브리핑에서 그는 “전반기가 어떤 분위기로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후반기 초반 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며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후반기를 시작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잡을 수 있는 경기는 확실히 잡겠다는 계산된 운영이다.

상대 한화는 이미 전반기 1위를 확정된 상태다. 최근 6경기에서도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꾸준한 페이스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 팀 타율 0.278, 평균자책점 2.73으로 투타 모두 리그 2위의 안정적인 전력 운용을 보여주고 있다.

KIA도 지난주 팀 타율(0.312) 리그 1위를

기록하며 방망이의 힘을 증명했다.

이번 맞대결에서도 한화 마운드를 초반부터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

최근 KIA 타선은 중심 타선뿐 아니라 백업과 테이블세터진까지 타격감을 끌어올리며, 상하위 타순 간 공격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다.

특히, 주간 타율 4할을 기록한 고종욱과, 장타력을 과시 중인 김호령의 활약에 가장

기대가 크다.

윤영철, 양현중, 네일로 구성된 선발 로테이션도 가동된다. 공격력은 살리면서도, 마운드는 실점을 최소화해야 하는 중요한 3연전이다.

KIA로선 한화의 기세를 꺾고, 후반기를 향한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반대로 전패할 경우, 최대 7위까지 하락할 수 있는 만큼, 한 치의 긴장도 놓을 수 없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도 3승 5패로 밀려 있다.

전반기 마지막 고비에서 호랑이 군단이 어떤 결과로 마침표를 찍을지, 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올 시즌 전반기가 끝난 뒤 오는 11-12일에는 KBO 2025 올스타전이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에서 열린다.

KIA에서는 팬·선수단 투표로 선정된 박찬호(유격수), 최형우(지명타자)와 감독 추천 선수인 최지민, 김태곤, 윤영철까지 총 5명이 올스타전에 출전한다.

김도영은 부상, 올리는 팔꿈치 염증으로 출전이 불발됐으며, 윤영철은 대체 선수로 합류했다.

/주홍철 기자

●프로야구 팀별 순위

〈7월 기준〉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한화	49	33	2	0.598	0
2	LG	46	37	2	0.554	3.5
2	롯데	46	37	3	0.554	3.5
4	KIA	45	37	3	0.549	4
5	SSG	42	39	3	0.519	6.5
6	kt	43	40	3	0.518	6.5
7	삼성	43	41	1	0.512	7
8	NC	37	40	5	0.481	9.5
9	두산	34	48	3	0.415	15
10	키움	26	59	3	0.306	24.5

광주시청 근대5종 전용태, 실업연맹회장배 우승

송학건설 조하은·서지영 여자일반부 5종 단체전 ‘金 합작’

광주시청 전용태(사진)가 제12회 한국실업 근대5종연맹 회장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에서 개인전 우승을 차지하며 시즌 2관왕에 올랐다.

전용태는 지난 3-7일 전북 완주국민체육센터 등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목에 걸었다.

전용태는 지난 6일 열린 대회 남자일반부 5종 개인전 결승에서 총 1천526점(수영 306점 3위·펜싱 236점 2위·장애틀경기 360점 8위·레이저런(사격+육상) 662점 2위)을 획득하며 1위를 차지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근대5종 역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안겼던 전용태는 지난해 장애틀 경기기 새로 도입된 5종 경기에 처음 출전한 제36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 근대5종 경기대회(6월)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도 개인전 금메달을 따내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전용태는 7일 남자일반부 5종 릴레이에서는 방준서와 함께 동메달을 합작했다.

여자일반부에서는 조하은과 서지영(송학건설)이 5종 단체전에서 값진 금메달을 합작했다.



영 조(총 952점)와 완주군정 김예나·이화영 조(935점)에 이어 동메달을 획득했다.

조하은은 여자일반부 5종 개인전에서는 동메달 추가했다.

/박희중 기자



제50회 KBS배 전국체조대회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수확한 광주체중 선수단. 왼쪽부터 박유빈, 송시후(이상 2년), 홍석류, 박혜빈, 홍라희, 금진주, 김예린, 조희원(1년).

〈광주체중 제공〉

광주체중 체조, KBS배 銀 1·銅 2

광주체중 체조부가 제50회 KBS배 전국체조대회에서 3개의 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체중 체조부는 지난 4-6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2개를 수확했다.

홍석류·박혜빈·김예린·금진주·홍라희·조희원(이상 1년)·박유빈(2년) 등으로 팀을 이룬 광주체중은 여중부 단체종합 부문에서 148.850점을 기록해 경북 포철중(157.050점), 서울체중(156.150점)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여자주니어 국가대표 송채연(3년)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한 가운데 주로 1학년 선수들로 구성된 선수들이 이뤄낸 성과라 의미가 크다.

광주체중은 개인 종목에서도 좋은 성과를 냈다. 홍석류가 도마에서 11.400점을 받아 은메달, 박혜빈이 평군대에서 10.450점으로 동메달을 각각 따냈다.

홍윤식 광주체중 체조감독은 “중요한 전국 소년체전 이후 다소 긴장이 풀릴 수 있는 시기였지만, 1학년 선수들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꾸준한 훈련을 이어왔다”며 “힘든 훈련을 성실히 따라와준 선수들이 고맙다”고 말했다.

이어 “기초 체력과 기술, 자세 교정 중심의 훈련을 이어가며 내년 소년체전에 대비해 심리적 안정과 기본기 보강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희중 기자

전남도체육회, 상반기 국비 공모 53억원 확보

‘전문체육·생활체육·스포츠클럽 활성화’ 탄탄한 도약 기틀 다져

전남도체육회가 2025년도 상반기 국비 공모 사업에서 총 53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며 전남 체육 도약을 향한 동력을 확보했다.

전남도체육회는 7월 “1월부터 6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 중앙기관이 추진한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문체육, 생활체육, 스포츠클럽 분야를 포함한 총 20개 공모사업이 선정돼 총 53억5천918만원의 국비 및 보조금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전문체육 분야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 3억9천497만원을 확보, 목포대와 동산대가 육상과 탁구, 태권도팀을 창단했다.

또한 여주시청 육상팀 등 도내 26개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금 5억9천725만원을 확보해 전문선수 육성과 경기력 향상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생활체육 분야에서는 해달맞이 생활체육교

실 운영을 통해 10개 시·군 20개소에 7천만원을 지원하며,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으로 14개 시·군 30개소에 3천500만원을 지원했다.

특히 생활체육 동호회리그 운영 지원으로 13개 시·군 28개소에 1억8천200만원을 확보해 도민 누구나 쉽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았다.

스포츠클럽 분야에서는 지정스포츠클럽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27개 프로그램에 8억1천만원, 전문선수반 운영에 11개 프로그램 기준으로 5억5천만원을 확보했다.

이밖에 단체구기종목 집중훈련캠프 운영(리더스포츠클럽) 사업으로 3억원, 단체구기종목 영재발굴 프로젝트로 1억5천만원을 확보한데 이어 지정스포츠클럽 추가 공모사업에서 1억4천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스포츠클럽의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에 집중했다.

또한, 오는 11월21-23일 강진군에서 개최될 예정인 전국스포츠클럽교류전 사업비 3억원



지난달 29일 목포에서 열린 제1회 전남스포츠클럽체육대회 탁구 경기 모습

〈전남도체육회 제공〉

을 국비를 확보,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체육회는 하반기에도 다양한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시·군체육회 및 경기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스포츠클럽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전남 체육 발전을 위한 기반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박희중 기자

신진서, 상반기 다승·승률·연승·상금 1위

‘바둑 황제’ 신진서 9단의 반상 독주가 올 상반기에도 이어졌다.

한국기원은 올 상반기 각종 기록을 집계한 결과 신진서가 다승과 승률, 연승, 상금까지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발표했다.

신진서는 1월부터 6월까지 35승 6패, 승률 85.37%로 다승과 승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21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25연승을 달리며 부문 1위도 차지했다.

상금도 신진서가 가장 많이 수확했다.

신진서는 난양배 초대 우승(상금 2억6천만원), 농심신라면배 5연패 견인(1억5천400만원) 등 총 5억6천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신진서가 주요 타이틀을 싹쓸이한 가운데 상반기 최다 대국은 다승 2위를 차지한 박정환 9단이 기록했다.

여자가사 중에서는 김은지 9단이 28승 16패, 승률 63.64%로 다승 1위에 올랐고 최정 9단은 18승 8패, 승률 69.23%로 여자 최고 승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